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 시 정 질 문

일 괄 질 문

한 갑 수 의 원

# 시 정 질 문

한 감 수 의원

- 먼저, 초지역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역사 개명은 이용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시가 개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명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지역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개명 신청하게 되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6월말 수인선 개통과 함께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일부 전동차에서 공단역으로 안내표기 되어 나오

는지, 과연 이것이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기도 재정난으로 인한 도비 축소에 따른 시비 증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1조원 이상의 세수결함으로 IMF 이후 첫 감액 추경을 추진하는 등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일 재정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비상국면이 금번 우리시 추경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실제로 시비 부담 증가라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은 차치하고라도 국가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담비율 조차 축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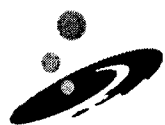
방법은 없는지, 또한 도비 축소는 결국 시비 증가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번 경기도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시도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10.11.(금)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 서면질문 〕

< 일괄답변 >

○ 한갑수 의원 : 2건



**안 산 시**

- 다음은, 한갑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지역 역사명 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12.6월 공단역이 초지역으로 역명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일부 열차 행선안내 개시기에 공단역으로 표기됨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2012. 6월 수인선인 오이도~송도 구간 부분 개통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역사 내 간판은 우리시에서 2천4백만원  
예산으로 교체하고 역사를 개명하였으나,
- 4호선을 운행하는 철도공사 전동차와 서울메트로  
전동차 중 철도공사 전동차는 모든 시설이 정비되어  
운행중이나,
- 서울 메트로에서 운행하는 전동차는 열차 내 안내  
방송, 행선안내 개시기, 노선도 교체 등 개명에 소요  
되는 비용 약 9천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 그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교체 요구 등 협의를 통해 전동차 내 행선안내 개시기를 제외한 시설은 모두 개선이 되었으나,
- 서울메트로에서는 행선안내 개시기 변경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제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2월경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시부담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최근 경기도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최악의 재정난으로 시비 부담 증가라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도비 축소는 결국 시비 증가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또한, 우리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 경기도가 세수결함으로 인한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의 2013년 1회추경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지시의 내용을 보면 33개사업에 9억7천원의 추가 시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비축 소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예산 대부분은 보건·사회복지 사업으로 시비로 추가부담을 하지 않거나, 사업대상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당초 수립한 예산액 집행에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 전국 최초로 지방세 지능형 징수통합 시스템을 도입,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 2% 향상으로 130억원의 세입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세정과에서 근무하던 전문 계약직을 10월 1일부터 차량등록 사업소에 기동배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누락된 세원과 탈루세액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일실된 세액 없이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등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